

[교육]

‘야자’때도 개인지도... 교사들 열정 남달랐다

(아간 자율학습)

명문에서 배운다 <5>

문경 점촌고

용은 개천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협준한 산속 고개에서도 난다.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점촌고등학교 이야기다. 점촌고는 백두대간 조령산의 가장 높고 험한 고개라는 문경새재에서 20km 떨어진 인구 8만명의 문경시내에 있는 시골학교다. 점촌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20년 역사에 불과한 지방 공립학교로는 기적이라 할 만큼의 진학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점촌고 2학년들의 수학 시간 모습. 원탁이 놓인 수학습실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문제를 풀고 토론식 수업을 진행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교사들의 희생을이다. 교사들은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고3들과 똑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의 표정엔 피곤함보다 자신감이 넘친다. 이젠 여러 지역의 학교에서 점촌고를 벤치마킹하려 올 정도다. 매년 졸업생의 70% 이상을 수도권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산골 명문교의 비결을 알아본다.

◇우리도 명문고다=서울대 3명, 연세대 7명, 고려대 7명, 서강대 5명, 한양대 10명, 성균관대 12명, 교대 31명, 의대의 대 8명 등 전체 졸업생 197명 중 139명(70%)이 수도권 대학 합격. 점촌고의 2006년 대학 입시 성적이다. 점촌고는 지난 1985년 개교한 이래 매년 비슷한 수준의 진학률을 기록 중이다. 웬만한 사립고 못지 않다.

각종 경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다. 지난해 전국 단위 과학 경시대회에서 7명이 입상한 것을 비롯해 문예대회, 영상제 등에서 50여명이 입상했다. 이는 아카데미 어드바이저(Academy Adviser) 제도의 효과다.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는 영어·수학·과학·문예 등 각 과목별 지도교사 13명이 160여명의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외 시간에 펼쳐는 심화학습.

점촌고는 차별화된 ‘학력 증진 프로그램’으로 학생·학부모 수업 만족도 평가에서 경북 유일의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선정됐는 가 하면, 제22회 경북 과학교육 실적 심사 결과 ‘과학교육 우수 학교’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공부했다=좋은 학교에는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생이 있기 마련이다. 매일 밤 11시까지 계속되는 야간 자율학습에는 최소한 교사 18명이 참여한다. 4층에 마련된 능력별 학습실은 전체 학생 540여명 중 90여명에게만 자리가 주어진다. 이 곳에 자리를 얻게 된 학생들은 쉬는 시간은 물론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무 때나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

두달마다 실험력이라 능력별 학습실 배정 방학때 학원식 강의... 부족한 과목 보충 놀때 화끈하게... 공부 스트레스 풀어줘

방학 때는 학원식 수강방식이 도입된다. 수학기초반, 영어중급반 등이 마련돼, 학생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원하는 교사를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보충수업을 운영한다. 인기 없는 강좌는 사라지기 때문에 교사들의 열의와 수업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다. 여름방학은 4~7일 정도로 짧다.

◇월 때 화끈하게= 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2시까지는 자유 시간이다. 학교 측은 공부하는 학교에서 ‘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주 동안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주말 하루 떨쳐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 측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지난해에는 공군 군악대 초청 공연이나 피아니스트 이루마 공연 등을 마련,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에는 인기 연극 ‘우동 한 그릇’이 상연됐다. 또한 상주지검 정은혜 검사, 원자력연구소 장인순 박사, (주)국순당 배상면 회장 등 명사 초청 강연도 인기다. 교장이나 교사의 훈화보다 훨씬 효과가 높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명문교의 특성 중 하나인 학생 자치권 보장은 점촌고에도 해당된다. 학교 신문·교자·영자신문 제작, 문예, 음악 연주, 방송, 댄스, 봉사, 전문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이 보장돼 있다. 지난해 수학여행은 중국 북경으로 3박4일 동안 다녀왔다. 두달 제한 기준을 학생들이 정했는 정도로 학생회 활동도 적극적이다. <끝>

경북 문경=글·사진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점촌고만의 학력 증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소학습실’. 전체 학생 중 상위 20%만이 ‘자신만의 공간’을 제공하는다. 학생들은 2개월마다 갱신되는 학습실 이용권을 얻기 위해 선의 경쟁을 벌인다.



점촌고 교문 앞에는 ‘일류화, 차별화로 세계로 도전한다’는 캐치프레이즈가 걸려 있다. 점심시간을 즐기는 학생들.

“일류·차별화 만이 세계로 뻗는 길”

고명원 점촌고 교장



‘일류화, 차별화로 세계로 도전한다.’ 점촌고등학교 고명원(58) 교장이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다. 고 교장은 학력과 의식의 일류·차별화 만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다.

고 교장은 점촌고 역사 20년 중 13년을 함께 한 ‘산 증인’이다. 개교 당시 평교사로 재직했고, 다른 학교와 교육청 등을 돌다 지난 2004년 교장으로 컴백했다. 고 교장은 “점촌고만한 학교가 없다”며 “훌륭한 학생과 훌륭한 교사들이 함께 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은 나에게 행운”이라고 말했다.

고 교장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참여할 정도로 열성적이다. 주변에서 “교사나 교장이 나 모두 미쳤다”는 말도 자주 듣는다고 한다.

고 교장은 “학생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임무”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세월이 흘러도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교장은 공군 군악대 등 학생들을 위한 공연을 유치할 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상태였지만 “학생들을 위해 부탁한다”면서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다. 이런 고 교장의 노력이 학생들의 사기를 높여준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고 교장의 3N(No) 운동은 유명하다. ‘휴대전화·폭력·흡연이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것. 이 원칙은 개교 이래 지금까지 잘 지켜져 오고 있다. 고 교장은 “학력 향상의 기본은 ‘올바른 생활 지도’에 있다”며 “자랑거리도 아니지만 지난 20년 동안 학생들 가운데 경찰서에 드나든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점촌고는

4년제 대학 매년 100% 진학 ‘산골 명문’

김천·상주·문경·예천·안동의 경북 5개 지역 중 유일한 인문계 고등학교였던 문경고등학교를 전신으로 지난 1985년 설립됐다. ‘지역의 명문고를 세우자’는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의 열망에 힘입어 시작부터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첫 졸업생이 배출된 1988년, 가톨릭 의대 차석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2회 때는 서울대에 3명이 진학함으로써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997년에는 서울대에 10명이 합격하는 등 매년 4년제 대학 100% 진학률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립고교의 모범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360-8114	360-8114	360-8114	360-8114	360-8114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광주 YWCA	527-0011	국립중앙도서관	112
월도안	1544-7788	24시간 청소년상담	221-6300	국립중앙도서관	226-0112
대한항공	222-2000	국립중앙도서관	1888	국립중앙도서관	233-2828
아시아나항공	221-6300	국립중앙도서관	1888	국립중앙도서관	02118
한국도로공사	1588-2505	국립중앙도서관	1888-0060	국립중앙도서관	1366
상담		상담		상담	
당직전화(14월)	228-7828	광주 YWCA	524-5400	국립중앙도서관	363-0155
법무사회 법률상담(14월)	239-1809	주부교육	232-0643-4	국립중앙도서관	363-7739
정선원	239-1809	국립중앙도서관	369-9881	국립중앙도서관	673-9001

꼭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중·고교, 공무원, 보건의료, 유치원교사, 전문직업교사, 평생교육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목표를 해결하려면 우선 다량이고 정교한 양질의 학습자료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습규모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비교 우위의 비교 강사진이 진공과별급 담당해야 합니다. 꼭내영 교육학의 교수진은 학부, 이론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수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한 높은 합격률로 입증된 비교 강사진입니다. 그러므로, 합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시, 교원임용시험은 교수진이 최고야 돼”

여름방학 특강 개강 7월 1일(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꼭내영 선생
- 수학/임대성 교수
- 생물/김지옥 교수
- 체육/내용희/김영호 교수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국어/최병해 교수
- 과학교육론/장영민 교수
- 지구과학/박순호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초등교육과정/위재진 선생
- 국어교육론/미운용 교수
- 물리/장영민 교수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미술/김성희 교수
- 영어/송옥 교수
- 화학/이영철 교수
- 일반사회/김형수 교수
- 음악/박성신 교수

전국 최강의 강사진만을 모았습니다.

수강문의: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에듀뷰넷

http://www.eduvie.net

생원인 로열강의를 원하는 시·현 중·고생은 꼭! 세 가지 혜택을 누리세요!

전국최고의 유명강사진 총집결

교육학 유아교육 미술
꼭내영 임미선 김성희

국어 영어 수학
최병해 송옥 임대성

체육 공평과학 일반사회
김영호 임 장영민 김형수

현재 성황리 강의중
문의: (02)816-1646

경찰의 꿈을 이루는 곳!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노량진 김재규경찰학원이
광주에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 합격을 앞당기는 시스템**

- 6개월회원제 (59만원) - 이론+문제풀이를 2개월 수강하는 금액으로 6개월 수강 가능
-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제풀이 모두 수강가능
- 1년회원제 (79만원) - 이론+문제풀이를 3개월 수강하는 금액으로 1년 수강 가능
-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제풀이 모두 수강가능

*** 차별화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형법 조태엽 교수	형사소송법 윤경근 교수
수사 오수영 교수	영어 오순아 교수	영어 정도별 교수

합격의 영광 뒤에는 김재규경찰학원이 있습니다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공무원 여름방학 2차개강

첫진도 시작반(이론반) 8월 1일 (광주유일 B반)

문제풀이 8월 1일(서울직 선관위 대비)

8월 1일

경찰직 이벤트 무료교재(138000), 10월 1일 시험대비 문제풀이 무료

무등고시학원 통부경찰서취
222-4560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전국 문·왕·출·신
수석 승 은 영 보 96.7

7월 3일 첫진도 시작반

합격률 1위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384명 중 본원출신 307명 합격!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623명 중 본원출신 498명 합격!

광주고시학원 www.gwangjugosi.com
☎ 227-8003
도원 일 컨설팅빌 7 / 지하 1층 도원빌 8번부

그 동안 김영출선 1만명 편입합격
www.kjkimyoung.co.kr

평민항라!

호남유일 의 치의학전문대학원대대강좌
MEET/DEET 대비반 개강

일반, 학사, 사대면임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약대, 한의대면임
생물, 화학, 원문, 원리학

교육대면입대비 - 김은신 교육학

김영대학면입학원 (광주통부경찰서취) 개강: 8월 1일 ☎ 227-8088